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5년 2월 19일

## CUOMO 주지사는 LAGUARDIA 공항에서 홍수 방지를 위한 2,800만 달러 발표

**FEMA 보조금은 홍수 벽, 중력 배수 및 개선된 전기 시스템에 대해 Sandy의 영향에 대한 건설을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 비상 관리기구가 LaGuardia 공항에서 Superstorm Sandy 이후 홍수 완화 및 복구 계획을 충족하고 또한 미래의 주요 폭풍 공항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재해 완화 교부금 프로그램 기금에 더 많은 2,800만 달러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urricane Sandy는 LaGuardia 공항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나 오늘날 우리는 이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탄력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의 새로운 경향에 직면하기 위해, 우리는 LaGuardia 공항 등 중요한 교통 허브와 경제 엔진이 다음 폭풍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주와 연방 파트너가 안전하고 강한 뉴욕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의 또 다른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perstorm Sandy 건설 지역으로 Flushing Bay의 상승하는 바다에서 LaGuardia 공항은 심각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주요 전기 비행장 인프라에 대한 손상은 공항을 3일간 폐쇄하게 하였고, 이는 손실 경제 활동 영역에서 불편한 수 천의 비행과 지역에 수백만의 비용을 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는 이미 2012년 10월 폭풍 이후 비행장 활주로, 전기 시스템 및 중요한 항공 장비를 보호 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단계를 위한 2,325,000의 FEMA의 교부금에 더해 새로운 FEMA의 교부금 28,148,625는 프로그램을 위한 총 연방 지출을 거의 3,050만 달러로 가져왔습니다.

항만 이사 Pat Foye는, “우리는 LaGuardia 극단적인 날씨를 견딜 수 있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항공기 운항을 재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홍수 벽,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LaGuardia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전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자금 3,0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하도록 도운 주지사에 감사드립니다.”

상원 의원 Charles E. Schumer는 “뉴욕의 주요 공항으로, LaGuardia가 미래의 폭풍의 경우에 비행장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완화와 복구 조치를 장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연방 재해 완화 자금 3,000만 달러가 홍수 벽을 구성하고 배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항의 백업 변전소를 업그레이드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쓰이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LaGuardia 공항의 홍수 방지 대책에 투자하는 것은 세 개의 주 지역의 항공편들이 다음 슈퍼 폭풍의 여파에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Kirsten E. Gillibrand는 “La Guardia 공항은 뉴욕과 우리의 관광 경제의 중요한 허브이며, 이 투자는 다음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이 Superstorm Sandy에서 계속적으로 재건하면서, 저는 FEMA와 우리의 연방 정부 기관은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 할 것입니다.”

하원 의원 Nita M. Lowey은 “LaGuardia 및 기타 중요한 교통 인프라는 미래의 폭풍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FEMA의 자금은 Sandy 이후 믿을 수 없는 황폐를 겪은 뉴욕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임원으로, 저는 연방 Sandy 복구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싸움을 주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지사와 함께 뉴욕의 복구 및 복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Carolyn B. Maloney는 “Sandy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인프라를 버팀목으로 만들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LaGuardia에 대한 이 업그레이드는 우리를 큰 걸음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잘 준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Joe Crowley는 “우리가 뉴욕을 Hurricane Sandy의 파괴적인 영향에서 회복을 통해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계속하는 동안 우리의 도시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인프라에 많이 필요한 투자를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떤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LaGuardia 공항에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LaGuardia 공항이 미래의 폭풍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계속 번창할 수 있게 하는 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주지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Grace Meng은 “이 중요한 자금은 LaGuardia 공항이 미래의 폭풍과 극단적인 기상 조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거대한 부양책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Cuomo 주지사와 FEMA에 감사하며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도록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항만 당국과 뉴저지위원회의 위원들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항의 서쪽 끝 전기 변전소 및 조명 볼트에 홍수 벽 및 빗물 펌프 시스템의 건설.
- 홍수 시 물의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두 비행장에 중력 배수 시스템의 개발.

- 업그레이드는 기본 전력 시스템으로 공항의 백업 변전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중단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의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백업 전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항을 통하여 비상 발전기 및 새로운 백업 발전기의 설치를 기존의 개선.

이 사업은 Cuomo 주지사가 약속한 NYS 2100 Commission Report에서 강조한 권고 사항과 일치합니다. 이 2100년도 보고서는 특히 홍수 통제 및 전력 시스템 복구 조치를 통해 활주로 등 주요 공항 인프라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LaGuardia 공항은 10,000여 명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지역 총 경제 활동에 13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는 뉴욕 지역의 주요 항공 시설입니다. Superstorm Sandy가 LaGuardia 공항에 미친 영향은 Flushing Bay에서 1억 갤런 이상의 물이 비행장으로 유입됨으로써 공항 폐쇄로 인해 3일 동안 상업용 항공기가 운항되지 못했습니다. 25만여 명의 승객들은 태풍이 몰아치는 동안은 물론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도 예약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 엔지니어링 및 건설 비용의 75%까지 커버하는 FEMA 보조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비용은 LaGuardia에서 허용 비행 요금 지불을 통해 상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50만 달러의 FEMA의 상환은 항만 당국에 적합한 비용 40,60만 달러를 기반으로 합니다. 연방 상환은 항만 프로젝트 사태 및 기타 기관의 연성 비용을 따로 설정한 추가적인 거의 5백만달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 건설 계약은 공개적으로 광고되며 낮은 입찰 프로세스를 통해 조달됩니다.

프로젝트 작업은 2016년 말까지 연 220개의 일자리와 임금 1,310만 달러 및 경제 활동 6,600만 달러로 추정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